

## 새로운 항공기상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소리를 듣다

항공기상청(청장 허복행)은 항공기 운항단계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Weather)」 사업의 하나로 「사용자 설명회」를 8월 29일(화) 영종도 골든튠립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항공사, 조종사협회, 항공분야 연구기관 등 14개 기관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운항 의사결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콘텐츠(안)과 차세대 항공기상서비스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의견으로는 항공교통 관제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비행 중인 조종사가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의 정보, 항공기상정보 양이 제한적인 동남아시아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관제영역별·위험기상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등이 있었다.

허복행 항공기상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객들의 의견과 최신 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항공기상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항공 안전과 국민들의 편안한 항공 여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용자 설명회 사진

담당 부서	항공기상청	책임자	팀 장	최준태 (032-222-3018)
	차세대항공기상팀	담당자	주무관	김애란 (032-222-3049)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사용자 설명회 단체 사진